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권능의 역사로 영혼들에게 믿음과 충만함을 더해준 이희선 목사 초청 네팔, 인도, 홍콩 선교 소식.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변화되기를 항상 힘쓰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란?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열심'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었는지 점검해 봄으로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인생의 참 행복이 여기 있었네요!"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문둥병에서 해방된 네팔 제이 램 부젤 성도와 목자의 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박산옥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766호 2016년 12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목회자 세미나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 성료



지난 11월 8일,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 사 이희선 목사(사진 1)와 선교팀은 한국을 출발하여 네팔, 인도, 홍콩 지역 선교를 잘 마치고 21일에 귀국했다.

사모함의 열기 속에 선포된 성결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고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 네팔 카트만두\_ 목회자들을 깨우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문둥병 치료

11월 10일(목) 오전, 네팔만민교회 성도 만남에 이어 오후에는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사진 2)가 진행되었다. 네팔뿐 아니라 두바이, 바레인에서도 뜨거운 사모함으로 참석하였다.

권능팀 특송 후 강사 이희선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제시한 '교회 성장의 비결'(행 2:42-47)에 대해 전했다. 이어진 찬양과 기도를 통해 참석자들은 자신의 목회

를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였고,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하였다.

11월 11일(금) 오전, 600여 명이 참석한 네팔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시 이희선 목사는 '변화'(렘 2:17~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오후 성령충만기도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희선 목사가 기도해 주자(사진 7) 옴 바하둘 라이 성도(사진 8)는 3년간 전혀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고 굽힐 수 없었던 허리를 굽히게 되었으며, 제이 램 부젤 성도는 문둥병을 치료받아 간증하였다(관련 간증 4면). 이 외에도 천식, 가려움증, 갑상선질환, 요실금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

### 인도 북부 델리\_ 귀가 열리고 시공을 초월해 열병 치쿰구니아 치료

11월 13일(주일), 델리만민교회 창립 4

주년 기념예배(사진 3, 4) 및 손수건 집회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희선 목사가 '열매'(요일 3: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하니 빠뿌 성도는 안구 이식수술 후 유증을 치료받았고, 로한 성도(사진 9)는 치쿰구니아 열병으로 집에서 고통받던 모친이 시공을 초월하여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간증하였다.

또한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시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귀가 열린 우메시 농아 성도(사진 10)가 농아들을 전도해 그 중 4명의 귀가 열렸으며 이 외에 시력, 당뇨, 각종 통증, 피부질환 등이 치료되었다.

### 인도 남부 첸나이, 홍콩\_ 양쪽 귀가 열리고 말하며 실명된 눈이 보여

11월 16일(수), 첸나이만민교회 성도 만남에 이어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예배(사진 5, 6) 및 손

수건 집회가 진행됐다. 이 목사는 '사랑'(요 15:7~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올해 8월 심장마비로 죽을 직전에서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으로 자스완쌍 성도(사진 11)는 불면증과 어깨 통증을 치료받았다.

라젠드란 성도(사진 12)는 양쪽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됐으며, 레베카 성도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 통증을, 르우벤 성도는 다리 골절을 치료받았다. 이 외에도 천식, 중풍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에서 놓임받아 영광 돌렸으며 물질 축복, 승진 등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한편, 11월 20일(주일) 홍콩에서는 추수 감사절 기념예배와 성찬식에 이어 손수건 집회를 통해 실명된 눈이 보이게 되는 등 많은 성도가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

# 나를 사랑하는 자들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충성을 하려면 먼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혈기와 감정, 교만과 욕심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상대를 실족시킨다면, 어찌 합당한 일꾼이라 하겠습니까?

영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반면에 육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기보다 자기 영광과 유익을 구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이것이 영적인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내 일을 맡길꼬?” 하시며 이 땅을 두루 살피실 때 우리를 보고 “저기 있구나! 저 자녀라면 내 마음으로 감당해 주겠구나!”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둘째, 성결을 이루고자 힘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집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물을 주면 기뻐할지, 그 마음을 알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며 그 마음과 뜻을 항상 궁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4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

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지요.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정독하며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을 일일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룬 것은 하나하나 줄로 지워 나갔지요. 마음의 죄성까지 온전히 뽑아내기 위해 금식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무수한 권능을 행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도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돌아보고 온전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결을 향한 열정이 결코 식어지면 안 됩니다. 성결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좇아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지요. 힘들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가는 것입니다. 만일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내가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충성한다.’는 생각 속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고 영을 이루며, 심지어 온 영을 이루었다 해도 흠 없이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진정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과 행실이 영혼들에게 덕이 되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 셋째, 영혼을 사랑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마음을 쓰시며 가장 애태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이 있는 반면, 기도할 힘

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이 곤고해하며 시험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지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도하고 심방하며 구제할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돌아보며, 범죄하는 영혼들을 볼 때는 마음을 찢으며 중보의 기도를 올리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열 재앙과 수많은 권능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지요.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 양 떼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내 힘으로는 저 양 떼를 변화시킬 수 없겠다.’ 하며 포기하시겠는지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고백했지요.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기를 항상 힘쓰며,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열정적인 사랑으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 주며 기다려 주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영적인 충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이 사명을 감당해 줄까?” 하시며 항상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또한 참된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 주시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충성을 하려면 육적인 충성이 아니라 영적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의 모습은?

만일 주 안에서 충성 봉사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연단 중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심이었는지 점검해 보므로 모든 믿음의 씨앗이 신속히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를 바란다.

## POINT 1

###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열심 내는 모습인가?

타고난 성격이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해 열심 내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춰 그 마음과 뜻을 구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목표를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방법을 구하며, 그 마음과 뜻에 맞춰 순종하려 한다.

가령, 더 큰 믿음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을 이뤄 드리기 위해 간절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도 저 사람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저보다 못한가?' 하거나 '내 직분과 위치에서 이만큼은 되어야 남 보기에 민망하지 않은데...' 한다면 이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앞서서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무장하다가도 막상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지쳐 낙심해 버린다.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두 달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면 중도에 포기한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기에 끝까지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다. 사명을 맡아 충성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

또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며 험하고 굶은 일이라도 자원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때론 선한 의도로 행한 일에 대해서 애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

## POINT 2

### 주를 향한 열심이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모습인가?

주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기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아 열심이 식은 것이다.

물질이나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점차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질병의 치료나 물질의 축복 등 기도 제목이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임하지 않으니 열심 내던 모습이 사라진다. 또는 직분을 사모해서 열심히 모임에도 참석하고 물질과 봉사도 부지런히 섬겼는데, 결코

적으로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하면 이후로 모임에 잘 보이지 않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도 자신이 주관할 때는 의욕적으로 동참하다가 다른 사람이 주관할 때는 협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

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이 한평생 변함이 없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외쳤지만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훼방한다며 핍박했다. 애써 개척한 교회 안에 음행과 각종 죄악이 번지고 성도 간에 분쟁의 소식이 들려서 깊이 근심해야 할 때도 있었다.

바울을 배신해 떠나는 일꾼들도 있었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 하며 배척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개의치 않았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주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고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지도 않았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어도 정신이 들면 곧장 선교를 떠났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혀도 깊은 밤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감옥에 갇혀 선교할 수 없을 때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 일꾼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했다. 이처럼 주를 향한 열심이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모습이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 POINT 3

###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 내는 모습인가?

충성된 일꾼은 변개함이 없기 위해서라도 그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뜨겁게 사명을 감당한 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주님을 대적하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

만으로도 감사한데 어찌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는가?', '내가 어찌 감히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다.

이처럼 받은바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 내는 사람은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했다 해도 하나님 은혜에 비할 수

없기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라고 여긴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죄악이 관영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구원받을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런 천국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막연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밝히 알며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면 날마다 이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며 뜨겁게 달려가야 할 것이다.

12 December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12.4~ 12.10

<p><b>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십계명 3-7</li> <li>■ 일곱교회 25</li> <li>■ 창세기 강해 25-31</li> <li>■ 1차 영혼육 1-5</li> <li>■ 요한일서 강해 37-39</li> <li>■ 성령의 9가지 열매 1-3</li> <li>■ 믿음을 척량하시니 20-24</li> </ul>	<p><b>GCN TV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믿음은 [이수진 목사]</li> <li>■ 영의 세계 13 [이희선 목사]</li> <li>■ 욕기 강해 25 [신동초 목사]</li> <li>■ 열 재앙 32 [정구영 목사]</li> <li>■ 위로부터 난 지혜 6 [김수정 목사]</li> <li>■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임학영 목사]</li> <li>■ 24절로 [김승진 전도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16</li> <li>■ 일곱달궁 어여쁜 울동 68</li> <li>■ 모두 드려요 60</li> <li>■ 창조와 과학 15</li> <li>■ English 1</li> <li>■ 내 마음의 찬양 43</li> <li>■ 마지막 때 4</li> </ul>	<p><b>해외성회 및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능 스페셜 13</li> <li>■ 말씀 스페셜 13</li> <li>■ 독일 연합대성회 1</li> <li>■ 믿음으로 걸어온 길 10</li> <li>■ 화상 20</li> </ul>
---	--	--	--

**GCNHD 채널**  
**ktallev tv 882번**

# “25년 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제이 램 부젤 성도 (40세, 네팔만민교회)



저는 네팔 동부의 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다섯 살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만질 때 손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몸 전체에 전혀 감각이 없었지요. 양손과 다리 전체에 상처가 생겼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병명은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현실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삶의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받았지요.

물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가 꺼려졌고, 제 자신도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학과 약으로도 제 질병은 치료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지요.

그러던 중 네팔만민교회에 다니는 형 시몬 부젤이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으면 성

령의 권능으로 온갖 질병이 치료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팔만민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이 오셔서 권능의 손수건 집회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카트만두에 와서 11월 10일 세미나와 11일 오전 창립 11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오후 성령충만기도회 시간에 감사 이희선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손수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5년간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전혀 반응이 없던 손가락이 움직인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모든 통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손과 다리에 난 상처들이 치유되고 누가 저를 만지면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기적 앞에 어안이 병병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감도 없이 홀로 살아가던 제게 따뜻한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끔찍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 네팔만민교회 창립 11주년 축하행사 시 특송하는 성도들(왼쪽 사진)과 치료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제이 램 부젤 성도(오른쪽 사진).

## “나이 들면서 오히려 젊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니 행복해요”

박산옥 집사 (79세, 광주만민교회)



저는 2010년 1월부터 자녀들의 전도로 광주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제 나이 일흔 하고 아홉, 한 달 있으면 여든인데도 아픈 데 없이 날이 갈수록 강건합니다.

얼굴에 무안단물(출 15:25)을 바르기 시작하면서 그

말던 검버섯이 떨어져나가 그런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젊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농사일로 몸에 통증이 있어서 침도 맞았고, 무릎이 시큰시큰해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2012년 봄에는 전신 류마티즘성 관절염을 신속히 치료받았습니다. 온몸이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칼로 콧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니 팔이 마비되어 올릴 수도 없고 대소변을 못 가늠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은 소경을 눈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저도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끌며 서울에 와 12일간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믿음이 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 지팡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전 성도가 성경 읽기에 열심인지라 저도 돋보기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깃불을 밝힌 것처럼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아! 내 눈이 좋아지는가 보네?’ 했는데 정말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도 돋보기 없이 성경책과 주보를 읽고 바늘귀까지 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전라북도 순창에서 농사 지으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외롭지 않나요?” 하고 묻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GCN방송이 있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 있나?”며 반문하지요.



집에서 광주만민교회에 가려면 길이 멀어 평일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TV만 틀면 GCN방송이 나오니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GCN방송 시간이 기다려지지요.

저는 수요일이 되면 일하다가도 머리를 감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은 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준비해 수요일예배를 드립니다. 밤 11시에 시작되는 금요일예배도 토요일 새벽 4시 마칠 때까지 함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울동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더욱이 이 나이에 병원 갈 필요도 없고 GCN방송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천국 소망으로 사니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동네 친구들과한테 “나 보시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약 한 번 안 먹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않소!” 하면서 전도도 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처럼 축복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34-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